

## 한국지리학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

이기석\*

### The Development of Korean Geography and Its Contribution to Society:1945-2005

Ki-Suk Lee\*

**요약** : 이 글은 학회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지리학 발전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학문의 사회적 공헌을 다각적 시각에서 점검하였다. 그간 한국지리학은 짧은 역사임에도 왕성한 학회 활동과 개인적 연구업적에 의해 학문적 기반을 토착화하고 전문화를 달성하였다. 또한 개인 학자들은 그들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국가 관련기관에 자문에 응하고, 관련 주요 연구기관에 진출하였으며 전문서적의 출간과 국내외 지리적 이슈에 참여하여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 하였다. 앞으로 지리학은 저변 확대와 함께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문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한국지리학, 대한지리학회, 29차 세계지리학대회, 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 In order to celebrate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development of Korean Geography and its contribution to society. There is no doubt that Korean Geography has become a major subject as a professional field of study and developed diverse sub-fields. At the same time, individual scholars have positively engaged in advising government on policy making issues, and a trend has developed whereby many scholars tend to find work in major research institutions rather than in universities. These scholars are also contributing to society through professional publications and by their involvement in national/international geographical matters. For the next generation, it is imperative that geographers in Korea meet the national demands of the subject as a professional field and continue to promote the practical necessity of geography together with its identity within the academic circles.

**Key Words** : Korean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9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GIS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kisuk@snu.ac.kr

### 1. 서론

대한지리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지리학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점검하는 심포지움의 개최는 지리학도 모두에게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우리학회는 지난 60여년간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도 30주년 기념논집, 50주년 기념논집, 그리고 2000년에는 제29차 세계지리학회회를 개최하여 한국 지리학자들의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왔다. 우리 지리학은 타 분야와는 달리 광복이후 100인 이내의 관심있는 회원으로 출발하여 중등학교의 국민교육과 대학의 지리교사양성 중심에서 그 기초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대학의 지리과 증설과 대학원의 확대 등으로 전공분야의 학생은 물론 연구 논문의 발간이 지리학 발전의 근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새로운 지리학 방법론의 도입과 응용 그리고 다양한 지리학 분야의 개척과 활용분야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지리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학회회원이 1000명에 육박하여

타 학계에 손색이 없는 규모를 갖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모든 분야에서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지리학자의 활동 범위도 넓히게 되어 직간접적으로 지리학이 사회발전에 다양하게 공헌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위성사진의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법이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폭넓은 활용과 그 유용성의 인정은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간 지리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대되고 지리학자의 사회적 요구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간접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같이 우리 학회 활동을 통한 성취, 개인 학자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전공분야에 대한 정부 기관에서 자문 역할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도의 일면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림1. 1966년도 대한지리학회 총회 참가자 기념사진

## 2. 한국지리학의 성장과 연구의 세분화

우리 학계는 지난 60년간 대학의 전공자나 관련학과 그리고 학회 회원 수에서 타 분야에 못지않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전공학과와의 경우 70년대와 80년대에 현재 28개 학과 중 19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학회 회원 등록숫자로 보면 1966년 119명에서 2005년에는 1000여명으로 거의 5배에 달하는 회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와 함께 학회도 전공분야에 따라 세분화하여 한국지리교육학회(2005년 2월 부터 국토지리학회로 개칭), 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사)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사)한국지도학회, 한국여성지리학자회, 한국관광지리학회, 한국사진지리학회 등 10여개 전문학회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지리학자들이 인접 학문분야 학회에 진출하여 폭 넓은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지리 분야에서는 지질 및 기상학학회는 물론 제4기학회에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문분야에서는 많은 지리학자가 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하여 한국지역학회, 한국측량학회, GIS학회, 한국영토학회, 한국관광학회, 한국동굴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동해연구회 등에서 학회장을 비롯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지리학자의 학문적 기여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수용과 그 연구 활동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리학 관련 전공 교수가 순수한 지리학 영역 외에 새로운 영역을 교수하고 있거나 전공하는 분야를 2002년 학회 회원 명부에서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수문학, 지하수학, 산지경관생태학, 제4기학, 화분분석, 환경문제, 지질학, 원격탐사, 지역정책론, 인간생태학, 수도권정책, 지역개발 정책, 지역경제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교수과목과 전공영역의 확대는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기여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2. 1995년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진

### 3. 학회 활동의 대외적 역량 강화

지리학의 사회적 기여는 학회지 발간, 대형 연구 과제 수행, 그리고 국제회의 등과 같은 학회활동을 통한 주도적 역할을 들 수 있다. 학회는 지리학 영역의 성장과 학계에 요구에 따라 학술지 발간을 년 1회(1963-1973)에서 현재는 년 6회 발간하고 있다. 학회지 증간은 학계의 발전과 요구도 있지만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사항이다.

학회 차원에서 대형연구과제 수행으로는 1980년부터 건교부 국립지리원에서 발주한 『韓國地誌』 편찬사업이 그 처음으로, 1986년까지 국내 대부분의 지리학자와 관련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이 지지는 광복 후 처음 편찬된 것으로 발간된 책자는 주요 대학 도서관과 군 단위 행정기관까지 배포되어 표준 한국지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20여년이 지나 2003년부터 제2차 한국지지 편찬 사업 진행되어 충청편과 전라·제주편에 이어 현재 제3편 경상편을 완성하였다. 앞으로 강원편과 수도권 편을 계속 연구사업으로 추진 할 것이다.

1992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7차 세계지리학회에서 2000년 대회를 유치하여 8년간의 준비를 거쳐 개최한 제29차 대회는 한국지리학 발전에 전환점이 된 것은 틀림없다.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지리학계의 모든 인력과 역량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대회를 통하여 한국지리학의 국제화와 국제적 활동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2000년 29차 세계지리학대회를 치루고 난 이후 우리 학회는 다양한 외부 학술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2003년 학회 부설 지리연구소의 발족은 대외 연구비 수주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1-2003간에 걸쳐 제1차 국립지리원 학술용역으로 '고산자 김정호 기념 사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제2차 학술용역으로는 한국측량협회의 지원하에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연구가 김정호에 대하여 집중되었으나 학회차원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되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도시지리 분야 회원들이 찬반토론에 참가하였으며, 학회는 건교부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으로부터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관련 학술 용역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몇 차례에 걸쳐 관련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행정수도 입지 선정에서 지리학 분야의 중요성을 범국가적으로 일깨우는 데 일역을 하였다.

이어 2005년에 들어와 학회는 한국지지 편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앞으로 4년간 '해양지명에 대한 조사 연구' 학술 용역을 맡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해상지명의 명명은 물론 해저지명까지 조사하여 주요 지형지물에 대하여 역사이래 처음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는 정부에서 학회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하는데서 온다고 본다. 또한, 지난 2005년 4월에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초의 학회 심포지움,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독도의 지정학'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움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지리학자들이 처음으로 학술적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지도책(National Atlas of Korea)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지리학계의 정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지도책 제작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학회의 공적 요구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정부정책으로 반영케 한 사례가 되었다. 학회가 한국지지 편찬 작업 이후 국가 지도 제작과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학회의 사회적 공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회차원에서 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계기는 2000년 6월 처음 실시하게 된 전국고등학생지리올림피아드의 개최이다. 이는 29차 세계지리학대회를 개최하면서 개최되는 경시대회에 한국 학생대표팀을 참가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1회 대회 이후 학회는 전국지리교사모임의 헌신적인 도움과 어려운 학회예산의 할애를 통해 2005년에는 제6회 대회를 마쳤다. 그리고 본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다.

#### 4. 개인 회원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지리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는 학회 활동과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별 지리학자들의 집필과 정부기구 내에서 자문 활동,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옳고 그름을 지상 언론, 강연, 캠페인을 통하여 바로 잡는 일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리학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

그간에 지리학자들이 대학에서 교육 활동 외에 정부와 주요 기관에서 어떤 자문에 응 하였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자료는 한국지리학계에 제1세대에서 제2세대에 해당하는 22인 학자들의 회갑기념논집과 퇴임기념논집에 기록된 주요 경력사항을 종합한 것이다. 교육계 경력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경력을 통하여 지리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을 할 수 있었던 가 알 수 있다. 단지 현재 활동 중인 지리학자의 정부 자문 분야는 이에 포함하지 않았다.

- 내무부 행정구역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 건설부 국토계획조사연구단조사위원
- 건설부 국토계획 심의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위원
- 인구문제연구소 연구부장
- 한국이민협회 전문위원
- 국토종합계획심의위원 전문위원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 국토계획조사단 계획위원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학술위원
- 보건사회부 모지정책자문위원
- 문화체육부 청소년교육자문위원
- (사) 이민협회 이사
- 건설부토지이용계획심의위원
- 정부시책평가위원
- 건설부국토계획조정위원
- 건설부국토정책심의위원
- 건설부정책자문위원
- 한국종합기술공사
- 국방부군수연구위원전문위원

- 건설부측량심의위원
- 국토계획연구소장
- 문화공보부 문화재 전문위원
- 금융통화위원
- 도시계획위원
- 가족계획심의위원
- 사회보장제도심사위원
- 중앙통계위원회위원
- 중앙경제심의위원회위원
- 재정금융위원회위원
- 인구문제연구소이사장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상기 기록에 의하면 지리학자들이 건교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부 부처 자문에 응해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리학자들의 정부 자문 실태를 포함하면 청와대 각종기획단 자문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총리실, 외교부, 건교부와 해수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부처에 골고루 퍼져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많은 신진 학자들이 정부국책 연구기관 내지 관련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학회 주소록에 따르면 지리학자들이 종사하는 주요 연구소는 모두 28개소로 지리학자들의 진로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원, 한국감정평가연구원, 기상연구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기상청,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대한항공, 경기개발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항공 GIS기술연구소,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첨단양돈연구소, 교통개발연구원, 강원개발연구원, 국립민속 박물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재외동포재단 등

학회 회원과 지리학자들의 출간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리지식의 사회 전달 매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의 국제 저명학회지에 출간되는 주요 연구논문이 메스컴을 통하여 바로 보도되어 대중

이 새로운 학문 세계에 접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리 학자들의 출간물이 논문이든 단행본이든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독자와 사회에 전달되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반면에 출간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알려 질 뿐 아니라 직간접으로 지리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기회는 아주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분야의 책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동안 지리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김찬삼교수의 1962년 간행한 '세계일주무전여행기'(어문각) 로부터 시작하여 1974년까지 4차에 걸친 여행기와 이후 2000년까지 계속된 여행기는 모든 사람에게 닦아오는 세계에 대한 생활상과 이해의 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했으며, 한국인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일을 했다고 본다. 그의 7차례에 걸친 여행기 출간은 아마도 어떤 지리학자도 다시 성취하기가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찬삼교수, 1962, 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 1965, 끝없는 여로: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 1972, 김찬삼의 세계여행, 삼중당 등
- 2000년 까지 3차의 여행기 발간.

또 다른 한 책은 최창조 교수의 1984년 간행된 '韓國의 風水思想'(민음사)으로 오래 동안 지관들의 미신 사상으로 치부하여 온 우리 선조들의 궤적을 논리 정연하게 학문적으로 격상시키고 해설함으로써 학계 뿐 아니라 대중적인 이해를 호소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었다. 이뿐 아니라 최교수는 현장 답사와 마스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풍수의 신비를 밝혀내는 일을 하였다. 이처럼 풍수로서 지리학이 대중에게 가까이가 다가가는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한다.

지리전문서적의 출간을 통하여 많은 회원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포상을 받아 연구 성과에 대하여 상응하는 인정을 받은바 있으며 지리학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여기서 지난 기간 출간 학술상을 받았거나 출판계에서 주요 도서로 선정된 모든 책을 망라 할 수는 없지만 80년대 이후 확인 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4년 최창조의 韓國의 風水思想(1984, 민음사)  
한국출판협회 주관 "오늘의 책" 선정

1991년 최영준의 영남대로 (1990, 고대민족문화연구  
구소)  
宇耕文化財團이 수여하는 제2회 우경학술상  
수상

이찬교수의 韓國의 古地圖(1991, 汎友社)  
1992년 韋庵 張志淵 先生 記念事業會에서  
제3회 韋庵學術賞 수상  
1993년 2월 5일 한국일보 주최 제33회 한국  
출판문화상(저작상) 수상

임덕순 교수의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 (1995, 집문당)  
1995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주관 "우리책 16  
선" "이달의 책"으로 선정

고 이 찬 교수(학술원 회원)는 한국의 고지도 출간을 통하여 고유한 고지도의 역사지리적 중요성을 대중화 하는데 선각자적 역할을 하였다. 이들 지리학 전문서적들은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계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읽힌 것으로 안다.

그리고 또 출간과 관련하여 기록 할 만 한 것은 2005년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민국 조직위에서 '한국의 책 100'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4권의 지리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4권에 책 중 2권이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추천서 4권 중 3권이 지난 10월 18-23일까지 독일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전시되는 영광을 가졌다.

- 최창조, 2000,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중국어  
어로 번역).
-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1999, 한국의 도시, 법문사(최  
종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의 생활:한국 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영어로 번역).
-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Korea:The Land and People, 교학사(영어).

이 전문서적외에 장보웅 교수의 韓國의 民家研究 (1981, 보진재)는 일본에서 번역판이 출간되었다. 또한, 옥한석 교수의 향촌문화와 사회변동(1994, 한올아카데미)는 강원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강석오 교수의 聖書의 역사지리(1989, 한국문연)과 성서의 풍토와 역사(1990, 종로서적)의 두책은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오랫동안 읽혀온 주요한 교양 서적이었다.

그밖에 지리학자들이 다방면에서 지리전문서적을 통하여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향토사 집필과 사회과학 전문서에서 타분야 전문가와 함께 집필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토연구원이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출간되는 많은 전문서적에 팀의 일원으로 지리학자들의 집필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Seoul, 20th Century: Growth & Change of the Last 100 Years' (2003년 출간)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 책은 2001년 국문으로 출간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영문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지만 해외에 널리 보급된 영문판 지리서적 중 하나 'Korea: Geographical Perspectives'(1989년 간,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는 모두 7인의 지리학자가 집필하였다. 이 책은 원래 1988년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리학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의 지원으로 시작 되었으나 1년 늦어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동안 미국 지리학과에서 Regional Geography of East Asia 과목에 주요 필독서로 채택된 바 있다. 두 번째 책은 2000년 29차 서울 세계지리학회와 때를 같이하여 출간된 류제현교수의 'Reading the Korean Cultural Landscape' (2000년, Hollym) 책으로 대외적으로 한국의 문화지리를 경관 변화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아마도 한국지리전문서로 Amazon.com에 소개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000년 IGC 대회를 계기로 성지문화사에서 편찬된 'Atlas of Korea'로 지도를 통하여 한국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다. 이외에도 공우석 교수의 The Plant Geography of Korea (1993, Kluwer Academic

Publishes)와 제29차 세계지리학회에서 조직위에서 편집한 Korea: The Land and People 등은 한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길잡이를 하였다.

개별 지리학자들의 출간 외에 많은 학자들이 국가 학술 용역에 참가하여 크고 작은 연구 업적을 쌓아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례로 1980년대 국민운동으로 전개된 자연보호운동에 일련에 지리학자들이 참가하여 그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과 모지정책에 참여하여 지리학자들의 의견을 개진 한 바도 있다.

그간에 많은 지리학자들의 참여 가운데 중요한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는 건교부에서 발행한 '토지이용도 1:5만' 제작에 필요한 국가사업에 참여하여 그 이론과 방법론적 실제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한 부분이다.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계속된 토지분류조사 (1-19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경희대학교 국토개발연구소의 조동규 교수를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작업은 국토의 토지이용 실태파악이라는 시작에서도 중요하였지만 경관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도 지형학자들은 사구의 변동이나 갯벌의 중요성과 같은 응용분야에 관련된 국가 연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소 입지와 관련하여 부지안정성 조사용역과 같은 연구사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5. 새로운 지리영역의 확대

세계지리학계나 한국지리학계가 지난 반세기에 가장 중요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헌한 업적의 하나는 지리정보시스템(GIS)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한 응용지리분야를 발전시킨 일이다. 초기 개념은 70년대 시작되었으나 컴퓨터의 발달과 위성사진의 응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80년대에는 그 기초를 다지고 90년대는 실용적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중등교육 현장에까지 주요 단원으로 소개되었다. 아울러 대학에서는 1990년

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관련 과목의 전임교수를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학과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행정기관까지도 이를 기초로 행정업무 기능을 새로이 배치하게 되었다. 국립지리원 역시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그 명칭을 2003년부터 국립지리정보원으로 바꾸었다. 지리학과 지도학을 기초로 하여 컴퓨터와 접목하여 이루어 낸 GIS는 이제 사회생활에 한걸음 닻아가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중등 교육으로부터 대학까지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응용분야를 넓히어 사회발전에 활용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우리는 지리학을 다루면서 환경은 잠재적으로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정작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환경이야말로 모든 학문분야가 협동체제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학회에서도 1980년 학회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간과 환경'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다. 1980년대 후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급성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학회가 설립되고 국민교육과정에 독립된 선택과목을 설치하여 환경교육이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처음 한국환경교육학회는 198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창립되었으며 초대 사무국장이었던 최석진 위원이 산파 역할을 하였다. 이 학회는 국내의 환경 관련 이슈를 모두 수용하는 반면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 중학교 교육과정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환경'을 독립 선택과목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환경 과학' 과목을 설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제7차에서도 중학교에 '환경' 고등학교에 '생태와 환경' 과목을 선택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였다. 최석진 위원은 본 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환경 과목이 국민 교육에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는 한 가운데에 있었다.

1998년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듯이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관리하에 환경교육협동과

정이 설치되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환경교육은 지리교육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실레이며 새로운 영역 창출에 어려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6. 국내외 지리 관련 이슈에 대한 참여

환경과 공간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대두 될 때 마다 지리학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술 논문이나 지상 매체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쉬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밝혀 왔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할당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오래 동안 호소하여 왔다. 최근에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부분적으로 지역할당제 의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NGO의 하나인 경실련과 같은 비정부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정부 정책과 시책에 지리학자의 전문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성신대 권용우 교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로 활동하면서 그린벨트 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도시관련 정부 정책 수립 위원회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지리학 응용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이 밖에 우리 사회에는 기피혐오시설의 입지선정 문제, 핵폐기물 저장시설문제, 댐건설 입지 선정과 시행, 다양한 환경 평가문제, 철새보호지역 선정문제, 휴전선 생태계 보전 문제, 세계유산 등재 문제, 영토분쟁, 동해명칭 표기문제 등이 모두 지리전문가의 관심대상이었다. 이들 문제가 대두 될 때 마다 이 분야 지리학 전문가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들 중 사례로 동강댐 건설 반대 캠페인, 세계유산등재 문제, 동해명칭 표기문제에 관련된 지리학자들의 활동을 요약하고자 한다.

동강댐건설 반대 운동은 1998년 시작되어 이후 3년간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경험의 장을 이루었다. 많은 지리학자들이 학문적인 견해



를 개선하였으며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이 중 건국대 박종관 교수는 동강자연본존연구포럼 의장으로 동강보존의 당위성을 대중화하고 정부 물 부족 논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캠페인에서 박 교수는 지리학회지에 논문기고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 세미나 발제 및 특강, 15회의 신문 기고, 그리고 댐 종합검토 조사단의 일원으로 맹활약을 하였다. 아마도 지리학자로서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당당하게 대응하여 결국에는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운동에 일역을 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캠페인에 동참한 여러 자연지리학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오래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이슈와 관련하여 지리학자의 국제적 활동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공헌이 아닐 수 없다. 1992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지리학회에서 2000년 제29차 IGC의 서울 유치에 대한 지리학회의 노력은 한국을 지리학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알리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996년 한국이 IGU의 부의장(이찬 교수 1996-2000년 역임)에 선임된 것은 IGC 유치와 함께 우리 지리학사에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2004년에 부의장(유우익 교수 2004-2008년간 임기)에 진출은 우리의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U에서 국제활동은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지만 국가적으로도 장려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과 북한 뿐 만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역사적 유산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는 가능한 많은 한국의 역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국대 이해은교수는 2003년 이래 세계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년차 회의에 참가 활약하고 있다. 동시에 이 교수는 국제 NGO의 하나인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소속되어 UNESCO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최

근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한국회원으로 처음 15인의 집행위원의 하나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이 교수의 활동이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보다 밝은 길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쓰여 온 동해 표기가 국제사회에 일본해로 표준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사실은 온 국민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1991년 UN회원국이 된 연후에 1992년 유엔 지명지명표준화회의(UNCSSGN)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표기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 전문가회의(UNGEGN)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많은 과정을 두고 있었다. 외교부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사단법인 동해연구회를 발족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동해연구회는 지난 11년간 국내외 지명 관련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11번에 걸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역사적 사료의 수집과 동해 표기의 국제적 정당성의 논리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밑받침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세미나는 해외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2002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03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200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05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해연구회(회장 이기석)는 1994년 이래 UN과 IH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엔 지명전문가회의의 중요한 실무위원회에서는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리학자들이 동해명칭의 회복운동 뿐만 아니라 UN이나 I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 7. 지리학의 사회적 요구와 전망

지리학은 분명 연구 대상으로는 지표면의 자연과 인문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조망하는 학문분야이다. 때에 따라서는 지표상에 자연현상에 중점을 두기도 했으며, 또는 인간의 활동

을 중심으로 이루어 놓은 공간현상 연구에 치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조화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려 오기도 하였다. 지리학의 연구대상은 지난 2000년간 변화는 없었으나 이를 다루는 방법론은 무상하게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연구방법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의 테두리가 새로워 질 때 마다 우리는 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여 왔다. 특히, 지표상에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데는 동의 기반이 통일되지 않은 채 늘 평행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지리학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인간 자체보다는 인간이 지표상에서 생활을 유지하기위해서 구축한 것들 혹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진 것들에 대한 공간 현상을 이해 설명하려고 무한히 노력하여 왔다. 이 처럼 지리학의 관심이 주어진 자연환경과 사회적인 산물에 대한 것이었기에 당연히 지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연구 활동은 우리 사회를 이해 하기위한 기초 연구로서 공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지리학은 광복 후 그리고 학회 창립 후 6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였다. 되돌아보면 황무지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단단한 학문적 기초를 이루었다고 자부하여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전공 세부 영역을 발전시켜 전문 학회 활동을 함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학회 차원이나 개인 학자들의 사회적 공헌들을 모두 망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그간 지리학자들의 활동은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60년은 새로운 시각에서 지리학이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학회회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리학의 사회적 공헌에 앞서 우리가 우리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가능성 타진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음 세대는 기초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위상과 실용적 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사회적 공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학회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회차원에서는 한국 지리학 발전을 위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이 독립과목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요구 대응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영역의 개척이 바람직하며 지리학 연구가 고용에 직결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다. 그 밖에 학회 차원에서는 지리학의 정체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문의 정의, 연구분야, 그리고 진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정보를 우리 사회에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한걸음 다가가야 겠다.

### 감사의 글

본 강연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학회회원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최석진 연구위원, 박종관 교수, 이해은 교수께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 요약하여 주신 자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고자료

지리학자 22인의 '회갑 혹은 정년퇴임교수논문집' 참고  
대한민국 학술원, 2002, 한국의 학술연구:인문지리학, 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오홍석, 2004, 현대한국지리학사, 도서출판 줌.북메이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2002,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지리학, 교육학, 독어독문학, 사회복지학, 7-181.  
제29차세계지리학회대회조직위원회, 2001,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울아카데미.  
형기주, 1995. 12. 30, 신세기를 향한 대한지리학회 - 역사의 뒷무대-, 대한지리학회보, 제48호.  
Lee, Ki-Suk and Rii Hae Un, 1985, Geography in Korea, *Professional Geographers*, 37-3, 344-345.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1, *Living with Diversity*, Report on the 29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Seoul.

## 한국지리학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 : 토론

토론자 : 강영옥(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센터장))

이기석 교수님의 발제 자료를 들으며, 지리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는 생각과 앞으로도 이러한 각 분야의 활동들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특히 2~3년 전에 '지리학과 사회참여'라는 주제로 대한지리학회에서 토론한 바 있었는데 다시 이러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지리학자들이 많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발제 자료 가운데 지리학자들의 많은 활동을 언급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아닌 연구소에서 실무에 보다 근접하게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리학자들이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만큼 밖에서도 인식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GIS분야에 대해서도 발제 자료 가운데는 지리학의 학 분야로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GIS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구성으로 볼 때 지리학 전공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 GIS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커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기업에서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유비쿼터스 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반가운데는 GIS가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포장으로는 유비쿼터스라는 언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지리학이 순수학문이라기 보다 사회적으로 응용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동향들을 어떻게 빠르게 파악하고 따라갈 것인가, 관심이 증대된다는 것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그런 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지리학분야 졸업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가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소에서도 변화를 거듭해야 하는 현실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여파는 지리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바뀌어나가지 않으며 지리학의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입지는 넓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 보면 이러한 노력은 결국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수님 개개인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학회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기석 교수님의 발제 자료 가운데 '미국지리학회(AAG)는 1945년 이래 주기적으로 지리학의 위성을 점검하고, 자평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우리도 학회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지리학대회 등을 통해 1년 동안 지리학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어떠한 분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해보고, 향후 어떤 분야의 연구를 지속해야 할지를 점검하는 일 등입니다. 자리가 잡혀 갈 때까지 분석들에 대한 정제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이 가능해지고요.

어쨌든 이러한 자리와 노력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회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토론자 : 최원희(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기석 교수는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에 관하여 한국 지리학의 성장과 전문화, 학회활동의 대외적 역량강화, 개인회원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새로운 지리영역의 확대, 국내의 지리 관련 이슈에의 참여, 지리학의 사회적 요구와 전망 등 6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1945년 대한지리학회 창립 이후 현재까지와 미래의 한국지리학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이기석 교수의 논의는 사안의 정곡을 제시하고 있다. 이기석 교수의 해안에 경의를 표한다.

여기서 이기석 교수의 논의를 보충하기 위하여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언급을 더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지리학의 성장과 전문화'에서 이기석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지리학회 이외에 10여 개 전문학회가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한국 지리학의 성장이고 전문화이다. 토론자도 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토론자는 대한지리학회와 이들 전문학회들간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모든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본다. 대한지리학회와 전문학회들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자는 대한지리학회와 전문학회들간의 관계 정립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대한지리학회와 전문학회들 모두가 발전에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개인회원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서 이기석 교수가 최창조의 「韓國의 風水思想」(1984)을 통하여 풍수의 신비가 실증적으로 밝혀졌고, 풍수로서 지리학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가 보기에 한국 지리학에서 풍수는 일견 아직도 공식적이지 못하고 지리학의 주변부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와중에서 정선과학, 역리학, 사주학, 민속학, 기과학 등이 이미 풍수를 자신의 고유한 연구영역으로 정립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이 풍수연구에 가세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의 한국의 자연지리학이 지형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을 지구과학, 지질학, 기상학 등에 양도하고 있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는 풍수의 과학성 여부를 떠나 풍수가 많은 대학의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에서 계통지리학의 한 분야로 취급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셋째, '새로운 지리영역의 확대'에서 이기석 교수는 '세계 지리학계나 한국지리학계가 지난 반세기에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GIS를 만들어내고, 이를 응용지리분야로 발전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가 보기에 한국 지리정보학회의 회원 구성과 활동을 보면, GIS가 지리학과 지리학자들의 전유물이 이미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토론자는 대한지리학회가 GIS의 연구와 사회적 기여에 아주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서 GIS에 관한 대규모 학술심포지엄과 박람회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지리학의 사회적 요구와 전망'에서 이기석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이 독립과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제7차 교육과정하에서는 3-10학년의 경우 사회과 체제 속에 지리가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고, 11-12학년의 경우 한국지리, 세계지리 및 경제지리가 나머지 6개 심화선택과목들과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우 타당하다. 토론자는 대한지리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지리교육이 지리학의 한 토대임을 명심하고 새로운 제8차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이 독립과목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또한, '지리학의 사회적 요구와 전망'에서 이기석 교수는 '지리학의 위상 점검과 새로운 방향 제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시의 적절한 것이다. 이기석 교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리학의 정체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문의 정의, 연구분야, 진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지리학의 사회적 요구와 전망'과 관련하여 김인 교수가 대한지리학회 뉴스레터 제87호(2005년 9월 30일자)의 지리포럼에서 제안한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공직으로의

진출'은 이기석 교수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진전된 방안이다. 이 지리포럼에서 김인 교수가 제안한 바와 같이 지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집단, 지리학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집단 및 지리학 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직자집단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리학을 지탱하는 삼각포스트가 될 때, 학문으로서 유서 깊은 지리학의 존재가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 토론자 : 박양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석 교수님의 논문은 매우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하고 싶다.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공공정책과 공적활동에서 한국의 지리학의 공헌을 매우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실증적인 분석이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지리학의 사회적 공헌도를 수치로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인다. 셋째는 지리학도로 하여금 미래의 공적활동과 정부정책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지평선을 활짝 연 논문으로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지리학과 공공정책 및 공적활동에 대한 상관성과 그 기여도를 밝히는 논문이 지속되길 바란다.

대체로 '지리학과 공공정책(Geography and Public Policy)'을 논함에 있어서는 지리학을 전공하는 인사들이 어떤 분야에서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여왕(Queen)이라면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왕(King)"이라고 한다. 경제학이 공공정책분야에서 다양하고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듯이 지리학 또한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지리학이 세계화정책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세계화 정책의 기초는 세계의 지리적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세계인종과 종교의 분포를 포함하여 산업과 교역의 활동과 흐름을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세계화를 이해하려면 세계지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음은 국무장관으로서 세계화의 메커니즘을 간파한 그의 선견지명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지리학이 국토 및 도시개발정책과 산업입지

정책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지리학자 피터 홀은 영국 런던대도시권계획수립에 공헌을 한 점이 영국왕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토개발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랑스에서도 지리학자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독일의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지이론에 있어 지리학의 공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있어 각국마다 지리학자들이 관련 이론과 정책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는 환경과 문화 그리고 교통정책에서도 지리학의 공헌은 지대할 수 있다. 생태지리학과 기후지리학, 지형학 등은 환경보전 및 방재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각국이 자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활동, 그리고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지정 활동 등에서도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그리고 인류지리학 등이 기여할 수 있다. 교통망을 구축하는 정책에서 교통지리학이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항만, 공항,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 구축에서는 지형학과 교통지리학, 그리고 교통공학이 결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는 지리학이 지방화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화란 결국 "지역의 고유성을 재발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지역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로부터 재발견될 수 있다. 지리학의 강점인 지지연구, 지도화 등은 지방화를 강화하는 정책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 밖에도 지리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위에 든 사항은 단지 몇 가

지 사례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국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 지리학자들은 국가정책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지리학자들의 기여는 잘 알려져 있다. 1970년 전 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소개서에는 지리학과 졸업 후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종사할 수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이 분야에 청운의 꿈을 지닌 젊은 이 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 몫 했다. 본 토론자가 그 중의 한 사람으로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종합계획수립에 미진하나마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됨으로써 그 속에서 지리학자들의 기여는 괄목하다.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있어서는 그 입지가 중요 했는 바. 신행정수도입지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권용우 교수님이 맡았다. 그 입지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신행정수도의 연기, 공주지역으로의 결정은 나중에 여야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된 혁신도시정책에도 지리학자들의 공헌이 크다. 기업도시건설의 입지선정 등에서도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님 등 여러 지리학 인사들의 기여가 컸다. 낙후지역개발과 관련한 신활력지역

의 평가에서도 지리학자의 기여가 돋보였다. 특히 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과 기술혁신 클러스터정책에서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와 업적을 성취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삼옥 교수님의 이론적, 실증적 기여가 근본이 되었다.

그 외 그린벨트정책을 비롯하여 경실련의 도시개혁 센터의 운영 등 날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NGO의 국토 및 도시개발과 환경관련 정책기여도 돋보이며 그 중심에 성신여대 지리학과 권용우 교수님 등 지리학자들의 역할이 괄목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정책, 남북한 교류정책, 동해지명관련 국제활동, 그리고 독도문제관련 정책에서도 서울대학교 사범대 이기석 교수님을 핵심으로 하여 여러 지리학자들의 기여도가 실로 크다.

본 토론자가 지금까지 언급한 지리학자는 일부사례로 실명을 든 것뿐으로 실로 광범위한 지리학자들이 공공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시간관계상 실명을 일일이 들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하기 바란다.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학자들의 공헌이 눈부시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대한지리학회가 주축이 되어 공공분야 인적네트워크에서 결정점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양성하고 확산시켜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토론자 : 이재하(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대한지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학회의 역사와 한국 지리학의 연구업적 및 사회적 공헌 등에 관해 회고와 더불어 스스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전망해 보는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써 몇 마디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학술심포지엄은 한국 지리학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 인기 있고 힘센 학문 분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자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기석 교수의 평가대로 지난 60년간 우리 지리학은 학회의 성장과 활동역량 강화, 지리학자의 학문 활동

과 사회적 영향력 증대, 지리교육에서 새로운 영역(GIS 및 환경교육)의 도입, 국내외 지리 관련 이슈의 참여 확대 등으로 괄목한 발전과 사회적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전문지리학자들(지리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업적과 활동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 지리학의 이와 같은 성장과 사회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은 그 동안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이것의 근거는 대학에서 지리(지리교육)학과의 인기가 여전히 낮고, 졸업생이 전공을 살려

일할 만한 직종도 교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에서 잘 확인된다. 한국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이 이처럼 낮은 것은 그동안 지리학계가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른 지리학의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지리학계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문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리학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GIS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강화이다. 한국 지리학에서 GIS분야는 최근에 여러 지리학과에서 GIS 전공 교수에 의해 교육되고,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90년대 이후 한국 지리학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한 분야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국내의 GIS관련 학회와 용역 시장에서 지리학자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화 되어있고, 지리학과 학생들의 GIS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더 이상 GIS교육의 강화가 필요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미국 지리학회(AAG) 회원들의 전문 분과(specialty group) 별 회원수 분포에서 GIS분과 회원수가 1980년 0%에서 1990년 15.3%(962명), 2000년 22.3%(1540명)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 정보화시대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약80%가 지리정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한국 지리학에서 GIS의 교육과 연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지리학의 교육과 연구의 강화이다. 세계적 지방화(glocalization)시대에는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각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져 해외지역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연구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지역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크기의 지역에 대한 순수 지역지리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응용 지역지리학(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 연구)적 접근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연구에 관한 정통학문으로서 지리학이 최근에 시대적인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다른 학문이 선점함으로써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의 특성을 살리면 충분히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지역연구는 최근의 경제지리학 연구성과 (지역혁신체제론, 산업 또는 혁신 클러스터 등)와 접목하면, 그 경쟁력은 배가 될 것이다.

셋째, 국토개발(특히,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교육 강화이다. 이 분야는 그 동안 지리학자들이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에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증가, 남북 화해와 통일로 인한 북한의 도시 및 국토계획 사업 급증 등으로 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지리학과는 개정중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7.1.1시행예정)에서 국토개발 분야의 '도시계획기사'(자격응시과목: 도시학개론, 단지계획, 측량학,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관계법규, 도시계획 실무)와 '지적기사'(지적측량, 응용측량, 토지정보체계론, 지적학, 지적관계법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의 자격응시학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에서 시험과목의 미개설과 개설부족으로 자격증 취득에 매우 불리한 형편에 놓여있다. 지리학과 학생들이 국토개발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의 중심교과목들은 지리학과에서 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자연환경보존과 관련한 자연지리학적 접근,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리 교육과 연구, 웰빙(well-being)과 관련한 지리학(관광지리학, 여가지리학, 음식지리학 등)적 접근 등도 한국지리학계가 강화해야 할 영역이자 과제이다. 한국 지리학이 그 사회적 위상과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요와 문제 해결에서 다른 학문에 밀리지 않는 지리학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대한지리학회는 우리의 그러한 경쟁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토론자 : 허우궁(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지리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공헌했는가 하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덧붙일 것이 없다. 발표자가 국내 지리학자들의 활동 상황을 잘 발굴하고 정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들의 활동은 이처럼 기획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기록하여 두지 않으면 산실(散失)되고 말 것이므로, 지리학의 '공헌'을 정리한 발표자의 '공헌'을 치하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 여러분들 가운데, 발표자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표자에게 전하여 학회지에 글자로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록이 나중 우리 학회의 역사를 정리할 때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의 과거 활동상을 발제자가 잘 정리하였으므로, 나는 앞으로 지리학이 어떻게 더 공헌하고 아울러 지리학의 내적 발전도 꾀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리학의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한다. 이것은 발표문의 제6절 사회적 요구와 전망에 대한 토론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기업체의 입사시험에서 '법학개론', '경제학원론' 등의 과목이 필수로 부과되곤 하였다. 아마도 법학이나 경제학이 기업의 경영에 필요하다는 인식, 즉 '브랜드 이미지'가 최고경영자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리학도 '브랜드 파워'가 없으면 법이 없다. 우리 나름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회 각계에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지리적 스케일로 보아, 지리학은 보통사람들의 일상에 밀착된 지역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이미지를 키울 것을 제안한다. 보통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된 지역이란, 전국 보다는 시와 군, 그리고 동, 읍, 면 등 작은 지구 수준을 뜻한다. 지리학은 세계지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종종 발견한다. 연구실로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다른 나라의 수도, 산 높이, 유명한 강 등을 묻는 전화를 받은 경험을 청중 여러분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시대에 이런 '세계지리' 브랜드 이미지는 좀 약하지 않나 싶다. 나라 안의 담론 스케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는 거대담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이

기도 하다. 정치로 말하자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치는 즐겨 논하되 시나 군 의회 수준의 논의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것, 경제학에서 세계적 스케일에서 한국 경제를 논하기를 즐겨하는 것 등이 단적인 예이다. 우리 지리학도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본다. 전국 스케일에서 지역균형 문제는 뜨거운 의제가 되지만, 지방의 격차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인구지리학을 예로 들면, 남한 전체의 인구 분포, 성장, 구조, 특성 등은 자주 연구·교육되지만, 동, 읍, 면이나 그보다 더 작은 단위지구 수준에서의 인구 특성 등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연구도 적고 잘 가르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시나 군의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 고장의 인구의 특성과 변화 추세와 같은 정보일 것이다. 기업 상품의 마케팅, 대민 서비스사업 등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미시적 스케일에서의 지리정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대학에서 지리학 강의가 자기 고장의 사례로 시종일관하는 것을 수없이 본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미시적 스케일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진단하고 지도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훈련한다면 지방의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앞 다투어 지리학도들을 채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또 이런 것이 바로 지리학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 즉 수요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본다.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지리학에서 다루고 해결할 때, 지리학의 브랜드 이미지는 더 뚜렷해 질 것이다.

둘째, 지리학이 다루는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는 지도를 대표적 브랜드 이미지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보통사람들에게 지리학에 대하여 물어보면, 지도를 지리학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자주 본다. 그들의 지리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처럼 지도가 필요하다면 지리학자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현실을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지리학의 한 분야라고 믿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대표 브랜드로 키워 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랜 옛날부터 지



도는 지리학의 주요 영역이었다. 그러나 어느새 지리학에서 가지고 있던 지도의 영토는 야금야금 빼앗기거나 영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말았다. 일반도 분야는 측량학과 측지학 등 공학 분야에 넘겨주고, 고지도 역시 역사학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며, GIS조차도 지리학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대학의 도서관에서조차, 지도도서실의 사서는 지리학의 배경을 가진 이가 아니라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의 몫이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고지도에서 현대 위성영상까지, 일반도에서 주제도까지, 전통 아날로그 지도에서 애니메이션 지도 더 나아가 이를 사이버공간에서 다루는 웹지도까지 지리학에서 되찾아야 할 고토(古土)는 넓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도에 빠져

산다. 업무에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그만 음식점의 홍보 명함에도 안내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목적지의 길 안내도를 보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현대 사회의 이처럼 방대한 지도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지리학이 사회에 '공헌' 하는 길의 하나임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현대 사회는 브랜드 시대이다. 학문이라고 해서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지리학' 하면 '내 고장의 전문지식,' 그리고 '지도'를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브랜드 파워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리학의 사회 공헌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